

현대미술 강국, 중국은 지금



'상하이' '베이징' 올림픽 효과 노린다

(9월9일~11월16일)

(7월8~10월8일)



프랑스 제치고 세계 3위의 미술시장 급성장 2015년까지 1천개 미술관·박물관 건립 예정

세계 미술 시장의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올 가을 베이징, 상하이비엔날레를 앞두고 30개의 미술관을 신축하고, 지하철도를 연장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사진은 상하이비엔날레의 전시장인 상하이현대미술관 전경.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대미술의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미술이 제29회 베이징올림픽(8월8일~24일)을 앞두고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 미술 시장의 맹주가 되겠다는 목표로 2015년까지 1천개의 미술관·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2000년부터 불기 시작한 중국 미술 시장 붐은 2005년 급성장을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프랑스(6.4%)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7.3%로 세계 3위의 미술 시장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외적 성장과 더불어 미학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비엔날레와 예술촌 지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미술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상하이, 베이징비엔날레의 준비 상황과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촌 베이징 '따산스 798', 상하이 '타이강루'의 현황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 아시아 비엔날레 맹주되나

중국인 상하이와 베이징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지하철도를 연장하고, 공항을 늘리는 등 교통·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개막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로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앞세운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 비엔날레들이 아직은 예산이 적고 자국 작가 중심이며 전시 기획의 질이 떨어지는 등 기초 토대가 부실하지만, 급성장하는 미술 시장과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막바지 개막 준비 한창=제7회 상하이비엔날레(9월9일~11월16일)의 참여 작가와 작품 선정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개막 직전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

그동안 자국 작가 위주로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외국 작가 참여 폭을 절반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한국인 작가도 3명 가량 포함됐다. 상하이비엔날레의 경우 외국작가는 1~2회 20명으로 참여폭이 좁았지만 지난 6회 때부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24개국 94명으로 늘렸다. 자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안방 잔치라는 세계 화단의 지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

주제도 다국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상하이의 특색을 살려 이주 노동자, 이방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는 뜻을 가진 합성어인 'translocal-motion'으로 잡았다. 예산은 20억원 가량이며, 12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는 상하이시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이곳에서 5분 거리인 인민공원, 조각공원, 상하이현대미

술관 등지에서 열린다. 또 780명의 작가가 입주해 있는 예술촌인 타이강루의 77개 갤러리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 상하이비엔날레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3회 베이징비엔날레(7월8~10월8일 예상)도 막바지 개막 준비가 한창이다. 베이징은 전시 주제를 'Colors and Olympism'로 잡았을 정도로 올림픽 효과를 노리고 있다. 회화와 조각을 중심으로 800여 점을 전시해 올림픽 관광객들을 비엔날레로 자연스럽게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예산은 20억원 가량이며, 작가는 50여개국 300여명. 한국에서는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일선씨 등 20여명 안팎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관광 인프라 확충=중국은 올림픽과 상하이엑스포를 기점으로 상하이·베이징비엔날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교통·관광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비엔날레 가는 길'을 닦고 있다. 국가 자본과 미술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비엔날레의 몸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비엔날레를 치르는 상하이는 지하철을 현재 100km에서 네 배 가량 연장시키고, 훙치아오 공항의 여객처리 연인원을 4천만명에서 8천만명으로 늘렸다. 5성급 특급호텔도 기존의 20여개에서 최근에서 22개를 새로 신축해 관광 인프라도 확충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상하이 시내 전역을 무대로 열리기 때문에 미술관 뿐만 아니라 전세계 관광객들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상하이를 찾은 관광객이 상하이비엔날레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과 비엔날레가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또 제3회 베이징비엔날레 개막 전에 베이징에 만 30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새로 짓고 있다. 세계적인 미술 특구로 떠오르고 있는 베이징 '따산스 798'도 정비하고 있다.

따산스는 세계적인 컬렉터 가이 울렌스가 지난해 11월 개관한 '울렌스 현대미술 센터(Ullens Center for contemporary Art)' 등 300여개가 넘는 갤러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비엔날레를 앞두고 수십 개의 갤러리가 새롭게 자리잡고 있으며, 인근의 797과 799구역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상하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거리가 없어 대형 예술촌을 관광상품화한 것이다.

제6회 상하이비엔날레 공동감독을 역임한 이원일씨는 "광주도 상무대 영창, 소화원, 보성 녹차밭, 다도해 등지의 관광 자원과 비엔날레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이 미학적인 성숙함보다는 외형적인 투자에 집중할 때 광주는 세계 미술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미적 담론을 생산하는 등 차별화된 전시 기획으로 세계 미술계에 어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상하이·베이징=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칭 상하이비엔날레 총감독

"아시아 비엔날레가 세계 미술 이끌 것"



"이번 상하이비엔날레는 세계 미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 축제가 될 것이다"

상하이비엔날레 장칭(zhang qing) 총감독은 제7회 상하이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자신했다. 지난달 23일 '2008 그랜드 아트투어'를 추진하기 위해 상하이미술관을 찾은 광주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들에게

그는 "아시아지역 비엔날레가 세계 미술을 이끌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하이미술관 관장이기도 한 그는 상하이비엔날레의 태동부터 참여했던 산증인이다. 올 상하이비엔날레의 화두도 단연 외국인 관람객 유치다. 제6회 대회까지 자국 작가 비중이 커 외국인 관람객 참여가 저조했다.

올해는 유럽과 스타급 매니저인 행크 슬레이어·졸리안 헤이넨 등 2명을 공동감독으로 선임해 해외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까지 베를린비엔날레 등 세계 각지에서 열린 크고 작은 미술 행사에 이들 매니저들을 파견해 상하이를 알렸다.

장칭 총감독 자신도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등 상하이비엔날레 홍보에 앞장 서고 있다.

그는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외국인 관람객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다국적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하이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민족간의 문화를 주제로 설정해 미학적인 내용도 채웠다"고 소개했다.

광주, 상하이, 싱가포르, 요코하마, 시드니 비엔날레를 패키지로 묶는 '2008 그랜드 아트투어'에 대해서도 "아시아 비엔날레가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medical services, legal notices, and business listings.